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0>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 뉘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하는 물음은 오랜 세월동안 눈이 한 개라도 있고 입이 제자리에 붙어있는 높은 다한번씩 물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선의 근본 정신을 묻는 선문답의 정형인지라 이에 대해 한 마디라도 대답하지 않으면 선사 측에까지 못하는 부당스런 질문이기도 하다.

십이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여 영화제목으로 다시 살아났다. 달마대사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인도에서 왔다. 밤 마실을 나가는 것도 다 까닭이 있기 마련인데 벽안의 눈 푸른 남자가 이역만리 중국으로 배를 타고 그 모진 풍랑을 헤치고 왔으니 그 이유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달마대사가 열반한 이후 웅이 산에서 장례를 지낸 지 삼년 후에 송운(宋雲)이라는 사람이 서역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총명에서 손에 짚신 한 짚을 들고서 홀홀히 가고 있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선사시여! 어디로 가십니까(師何往)?”

“서역으로 가노라(西天去).”

송운이 복명을 마친 이후 왕에게 여담으로 길거리에서 달마대사 만난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황제가 의아해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열게 하였는데 빈 관에 신 한 짚만 남아 있었다. 그 유명한 ‘수휴려리(手携隻履·손에 짚신 한 짚 들고서) 공안의 전말이다.

달마는 다시 서쪽으로 가 버렸다. 그렇다만 달마께서 서쪽으로 가신 뜻은?

어쨌거나 달마는 동쪽으로 왔다. 다시 서쪽으로 가 버렸다. 그럼에도 ‘동쪽으로 온 뜻’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일본에까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은 태평양 건너 신대륙까지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의심의 화두가 돼 퍼져나가고 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에 대한 대답은 정말로 다양각색이다.

조주선사는 ‘뜰앞에 잣나무(庭前栢樹

子)’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날엔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 “울안에서 소를 잃느니라”고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설날이 저물어도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사주지 않는다”라고도 한 바 있다. 조주선사의 답변이 비교적 다양하다. 원체 말씀을 잘 하시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운문선사는 지지분하게도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다. 기상천외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현오광혜(玄悟光慧)는 ‘조사서래의’를 묻는 남자에게 “예배하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不禮拜 便待何時?)”라고 되쏘아주고 있다. 아마 본질적인 답변에 너무 목이 말라 선지식에게 질문하는 것조차 있어버리고 뻣뻣하게 선 채로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진지하게 들었던 모양이다.

동산(洞山)선사는 “마치 놀란 닭과 물 소갈느니라”고 하였고 영운선사는 “지독한 특에 쓰일 때를 임하여 우를 밀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느니라”고 했다. 그리고 고보니 ‘내일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키노자(1632-1677)의 말도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 모양이다.

현자(峴子)스님은 “신주 앞에 놓인 술잔이니라(神前酒盞盤)”고도 하였고, 영안선사는 “벼 위에 마른 소나무를 그려놓으니 벌들이 다투어 와서 꽃술을 모으느니라”하여 술거가 그랬다는 그 유명한 벽화를 생각나게 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

뽀니뽀니 해도 조사서래의를 묻는 말에 입제와 법상의 답변이아말로 최고답안이다.

임제선사는 “만약 서쪽에서 오신 뜻이 있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若有意 自救不了)”라고 조금 고상하게 에둘러서 말하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나꿔채서 대법법상선사는 아예 한 술 더 떠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느니라(西來無意)”고 하여 가장 과격한 그러면서도 일체 군더더기가 없는 대답으로 매조했다.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禪의 근본정신 물으니 선사들 대답 다양각색 당신은 뭐라 답할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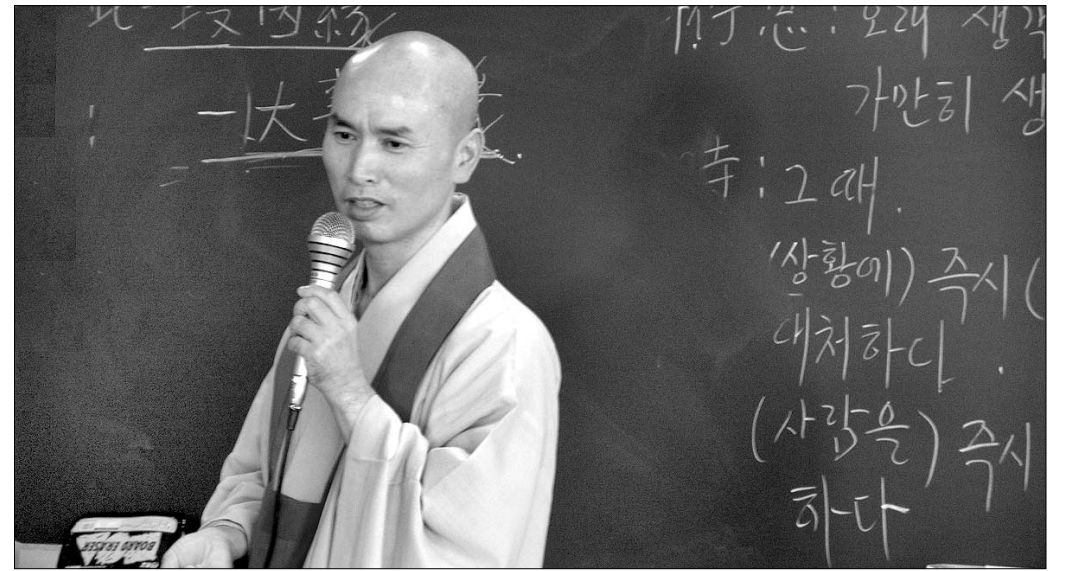
대진 스님이 말하는 '서장'의 핵심

선방 수행자들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걸망 속에 이 책은 넣고 싶어지고 다녔다는 <서장>. <서장>은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 왔을 정도로 선문의 요지를 간명하면서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참선 지도서다.

하지만 원문이 한문으로 돼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재가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해 서울 상도동 보문사는 前 직지사 강주 대진 스님을 초청해 9월 19일부터 <서장> 강의를 열기 시작했다. 강의는 10월 19일까지 매주 화·수·목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한 달간 진행된다. (02)823-7443

첫날 열린 <서장> 강의와 대진 스님 인터뷰를 종합해 <서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서장>이 왜 재가자들에게 필요한 선 지침서인지 등을 정리한다.



대진 스님은 <서장>이아말로 재가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장' 속에 생활선 있네

▷ 재가자들이 <서장>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불자라면 마땅히 경전을 읽어야 한다. <서장>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해야 할 책이다. 특히 재가자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재가자들은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서장>에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실생활에서의 선 공부, 즉 생활선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서장>이다.



▷ <서장>의 핵심

소를 먹이러 가서 한 사람은 책을 읽고 한 사람은 짐을 짓는데, 둘 다 소를 잃어버렸다. 책 읽다가 소를 잃어버린 것이 낫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은 것은 똑같다. 도를 닦으면서 본래마음이 도를 향해 힘써거리는 것이나 재물을 향해 힘써거리는 것이나 힘써거리는 것은 똑같다.

<서장>의 핵심 가르침은 정견을 확고히 세우고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화두를 들든 위빠사나를 하든 정견이 바탕이 되어야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서장>을 간화선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서장>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서장>에서 화두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선을 공부하든 <서장>을 보면 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 선수행 시 경계해야 할 것

<서장>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다...(중략)...만약 마음으로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마음으로 휴식을 기다리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참선해서 미혹이 하생함에 이르러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휴식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미혹한 고민만 더해갈 뿐이다”는 내용이 있다.

공부 시작은 '정견' 세우는 일부터 깨달음 집착하는 마음 탐욕일 뿐 생활속에서 탐심 버리는 노력 해야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경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부처·도·깨달음·삼매·열반·무심·무념·일심 이런 것들을 ‘특정 세계’로 설정을 해 놓고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이념가가 되고, 그 공부는 결국 이념과 사상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오면 끝없이 무엇을 주장하고 자꾸 의외의 일어나서 마음이 휴식을 못하게 된다.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도라는 ‘특정 개념’을 설정해놓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이 특정 대상을 향해 달려가면 이미 그 자체가 탐욕이다. 도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탐하는 것이나 세속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나 탐하는 것은 같다. <서장>에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도를 닦되 도를 갈구해서는 안 된다.

▷ 생활선의 요건은?

선을 논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체행

없이 머리론만 이해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실제 생활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대해 스님이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다.

선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의 휴식과 평화를 찾는 일이다. 휴식과 평화가 찾아오면 그 자리가 도의 경계고 진리의 경계다. 이것을 조사들은 ‘당처성불(當處成佛)’이라 했다.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앉아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것도 아니다. 탐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자신의 본래본성을 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마음을 잃게 된다. 대해 스님은 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하려 했다. 화두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 <서장> 공부하면서 유념할 부분은?

<서장>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서장>의 내용은 사실상 대해 스님이 재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충분히 공부한 뒤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서장'은

중국 남송 시대의 대해 스님(1089-1163)이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공부에 관한 여러 요지’를 대답해 준 편지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수준에 맞게 구체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애정 어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체가 본래 성불해 있다는 선의 근본 입장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해 조사선의 체계를 확립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입교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절고려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신라에서 佛敎 儀式 新編 佛敎 儀式 新編 齋禮 儀式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중에서 유인이 귀귀하고 유 만물중에서 유인이 最上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합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신라에서 齋禮 儀式 新編 齋禮 儀式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제불보살명단의식	제8장 파불의식
제9장 점안편	제10장 이운편	제11장 수계편	제12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매장	제5장 화장
제6장 四十九齋	제7장 인제(入齋) 삼우제(三處齋) 초제(初齋) 이제(二齋) 삼제(三齋) 사제(四齋) 오제(五齋) 육제(六齋) 칠제(七齋)	제8장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정청 영산대제 괘불이운 권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왕상칠제(修往生七齋)	제9장 기제사	제10장 靈魂結婚禮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